

기획논문

# 2022 개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과 특징\*

이진희\*\* · 임미영\*\*\*

## Development Directions and Key Characteristics of the 2022 Revised High School “Inquiry on Cities for the Future” Curriculum\*

Jinhee Lee\*\* · Miyoung Im\*\*\*

**요약:** 본 연구는 2022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인 「도시의 미래 탐구」의 개발과정과 개발의 방향 및 교육과정을 탐색함으로써 신설 과목의 교육과정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2022 개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 개발의 주안점은 첫째, 현장 지리교사와 학생의 선호와 요구를 적극 수렴한 상향식 개발, 둘째, 지리적 관점에서의 시민성 함양을 강조한 내용 구성, 셋째, 지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영역별 탐구주제 제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삶의 공간, 도시’, ‘변화하는 도시’,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도시의 미래’ 4개의 영역을 설정하여 도시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도모하며 세계 여러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탐색하고, 도시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구상하고 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실천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어:**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지리 교육과정, 교육과정 개발, 성취기준, 도시의 미래 탐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newly developed the 2022 revised high school ‘Inquiry on Cities for the Future’ curriculum by exploring the curriculum development process, development direction, and the achievement standards. The subject 1) allows students to explore the dynamic changes of cities around the world based on geographical understandings of cities, 2) enables students to envision a better future for cities through scientific analysis and humanistic reflection on urban issues, and 3) helps students cultivate the spatial citizenship.

**Key words:** the 2022 revised curriculum, high school geography curriculum, curriculum development, achievement standards, Inquiry on Cities for the Future

### I. 서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계속하여 개정되어왔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에 확정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수시 개정 체제 이후 네 번째 교육과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더욱 정련화 하고 2025년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자,

\* 본 논문은 은지용 외(2022a, 2022b)의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및 최종안 개발 연구 보고서 내용 중 고등학교 진로 선택 과목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 부분을 재구성하고 수정·보완하여 제시하였음.

\*\* 부산대학교 지리교육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jinhee@pusan.ac.kr

\*\*\* 인천 대인고등학교 교사(Teacher, Daein High School), ganzrein@ice.go.kr

기후환경 변화,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 급속한 사회 변화와 이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가진 학습자를 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은지용 외, 2022). 구체적으로는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설계할 수 있는 학습자 맞춤형 법교과 학습 주제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통해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민주시민성, 생태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강조한다(교육부, 2021).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에 따라 고등학교에서 개설되는 지리 교과목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 1」과 「통합사회 2」 외에 일반 선택 과목으로 「세계시민과 지리」,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한국지리 탐구」와 「도시의 미래 탐구」,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으로 「여행지리」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교과가 개발되었다. 특히, 「도시의 미래 탐구」와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존재하던 과목을 변경·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차조일 외, 2021)에서 지리학계와 지리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된 교과목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개설되었다.

신설 과목의 경우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성취기준 및 해설의 분량 제한으로 인하여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목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의 개발과 관련한 과목의 개발과정, 개발의 주안점 및 특징, 교육과정 내용 체계, 성취기준에 대한 해설, 그리고 개발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논의 사항을 소개함으로써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이 과목을 가르칠 교사들과 이 과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2. 교육과정 개발 과정 및 절차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뉘며 보통교과는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다. 공통 과목은 고등학생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 과목은 다시 교과별 학문 영역 내의 주요 학습 내용의 탐구를 위한 일반 선택 과목, 교과별 심화학습 및 진로 관련 과목인 진로 선택 과목, 교과 내·교과 간 주제 융합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인 융합 선택 과목으로 나뉜다(교육부, 2021:14).

이러한 방침에 따라 각 교과별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틀에 맞는 공통 및 선택 과목을 구성해야 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의 성격을 갖는 ‘역량 함양 사회 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차조일 외, 2021)에서 사회과의 선택 과목을 제안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교육과정에서 확정된 사회과의 선택 과목은 표 1과 같다.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차조일 외, 2021)’의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 지리영역 연구진들은 현장 교사와 지리학 및 지리교육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리 관련 4대 학회와 전국 단위의 14개 지리교사 단체가 결성한 ‘미래지리교육발전 위원회와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산하의 ‘지리교육과정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 개발할 선택 과목의 이름과 과목의 성격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합하고 학생 선호도 설문지를 거쳐 신설 과목명 및 내용 요소를 제안하였다.

교수 1명, 교사 1명으로 구성된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 연구진은 이상의 과정을 거쳐 제안된 과목명, 방

표 1. 고등학교 사회교과군 선택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 <b>도시의 미래 탐구</b>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의 이해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 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출처: 교육부, 2022a, 26에서 재구성

향, 내용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도시의 미래 탐구」가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지리 교과와 관련한 심화 학습 요소를 다루며 다양한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모학문의 최근 연구 성과, 국내·외의 관련 이슈, 국가·사회적 요구, 현장의 요구,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교육과정 개발 1차 연구에서는 과목의 성격과 목표를 설정하고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2022년 7월부터 11월까지 수행된 2차 연구에서는 개발된 내용 체계와 성취기준을 오해 없이 전달하고 학교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취기준 해설’과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그리고 ‘교수학습 및 평가를 작성하였다. 2차 연구부터는 2명의 교사가 연구 협력진으로 참여하여 개발된 교육과정 시안을 학교 현장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지리 교과 및 내용 연구자, 교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을 뿐 아니라, ‘전국 지리교사 네트워크’, ‘교육과정 핵심교원’, ‘국민참여소통채널’ 등 현장의 교육과정 관련자들과 일반인의 의견도 함께 수렴하고 여러 차례에 걸친 상호검토를 통해 교육과정 시안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 II. 2022 개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 개발의 주안점

2022 개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학습의 주체인 지리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으며, 둘째, 지리교육을 통한 시민성 함양에 주안점을 두어 로컬 시민성, 민주 시민성, 생태 시민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고, 셋째, 탐구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하여 영역별로 주제와 관련 있는 탐구 주제를 제시하였다.

### 1. 현장 지리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수렴한 상향식 개발

「도시의 미래 탐구」는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차조일 외, 2021)’에서 제안한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과

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육과정 개발과정은 소수의 개발진이 전담하여 교육과정에 포함할 내용과 성취기준을 선정 및 조직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다소 한정적이었다. 그러나 본 과목은 현장 교사, 학생들의 설문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목명을 정하였고, 학습 내용을 조직할 때도 현장 교사들과 지리교육 연구자, 그리고 지리학자들이 모학문인 지리학의 최신 연구 동향과 학생들의 진로 및 흥미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필요한 학습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수렴된 의견과 요구를 검토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처럼 교육과정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한 것은 교사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흥미롭게 여기는 것들을 다룰 때, 고교학점제 체제에서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제안된 내용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적용 가능성 및 학문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내용 요소를 배치한 후 필요한 교수학습과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내용을 교육과정으로 구성하면서 고려했던 점은 첫째, 학계의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담는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배우고 싶어한다고 하더라도 국가 교육과정은 학문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다루어야 하므로(신경희, 2016; 온정덕 외, 2021) 제안된 내용이 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학문적 기반을 가지는지, 교육과정 문서에 명문화 되기에 적절한 것인지 논의하였다. 특히, 지리 교과의 심화 과목인 만큼 모학문인 지리학의 학문적 연구 결과가 있는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둘째,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선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준이 되므로 내용의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다양한 지리교육 관련자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들이 다수 제안되었는데, 연구진의 논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재 사회적 주목은 받고 있으나 학문적 기반이 약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제외하였다. 셋째, 너무 지엽적인 소재를 교육과정 문서에 전부 담는 대신, 해당 소재를 포괄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 개발 시 영역(대단원) 당 내용 요

소를 3~4개만 제시하라는 지침이 있었고(온정덕 외, 2021), 너무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과정에서 내용 요소로 제시할 경우 현장에서 교사의 수업 구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제안된 내용 요소를 포괄할 수 있는 대주제 중심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예시로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 vs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 역세권, 투기적 도시화와 도시의 공공성, 나에게 적합한 주거지 구하기, 도시 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등의 내용이 핵심 내용 요소로 제안되었는데, 이 내용을 전부 나열하는 대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도시의 부동산과 주거 문제’로 바꾸어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 넷째, 현장 지리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요소를 선별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과목의 존립을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김동욱, 2019; 홍원표, 2023). 또한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도시공학, 환경공학, 부동산학, 정책학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적인 내용을 내용 요소로 포함하지는 내용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흥미와 인기에만 초점을 두어 이러한 제안을 모두 수용하게 될 경우, 지리교사들에게 생소하고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 교육과정에 포함되게 되어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지리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자 하였다.

## 2. 지리적 관점에서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단원 구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역량 함양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교육목표,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언어·수리·디지털 소양 등 기초 소양을 함양하며,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범교과 학습 주제의 반영을 강조한다(임은진, 2023). 특히, 시민성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면서, 문화 다양성, 미디어 리터러시,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 지역 및 국가 공동체 참여와 실천, 비판적 사고,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민주시민교육의 주안점으로 제시하였다(교육부, 2021). 「도시의 미래 탐구」에서도 위와 같은 시민성 함양을 위해 지리교과 및 과목의 특성을 반영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는 데 초점

을 두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의 내용 체계를 따라 도시의 형성과정과 변화를 이해하고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요소를 제시하였다. 특히,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학생들이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사회적 문제 및 재난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학생주도의 탐구 활동을 통해 시민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다양한 도시 혁신 사례를 통해 도시정치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함양하기를 기대하는 시민성 관련 요소들은 교육과정의 ‘목표’에 서술되어 있으며 굵게 표시한 부분이 시민성 함양과 관련한 내용이다.

- (1) 도시의 의미와 도시에서의 삶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한다.
- (2) 세계 여러 도시의 변화 과정을 문화·소비·기술 발달 등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도시의 경관에 나타나는 도시의 복합적인 특성을 탐구한다.
- (3) 지리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시각화하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탐구과정을 통해 **도시 문제와 공간 불평등을 이해**하고, **공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을 비판적으로 모색**한다.
- (4)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도시 계획과 도시 혁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연계성을 인식하며 **공존을 위한 방안을 실천**한다.
- (5) 도시 **구성원 간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는 **도시 정책의 개발 및 실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출처: 교육부(2022, 277). 저자가 강조하여 표시함.

## 3. 지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영역별 탐구주제 제시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지리학 내용 요소의 심화 학습과 진로 탐색을 위한 과목이지만 ‘탐구’라고 하는 교과목의 의도를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을 지양하고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지리적 현상을 인식하여 현상 및 문제의 원인과 진행

과정을 이해하며, 세상을 다양한 스케일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탐구의 과정을 통해(박선미·김혜숙·이의한, 2009)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탐구를 통한 지리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탐구 주제가 다음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Roberts, 이종원 역, 2016, 19). 첫째, 학습자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질문이 필요하다. 교사가 학생들이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알아야 할 이유를 만들 때,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고, 상황이나 과정을 추측하며,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 내고, 어떻게 연구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지를 계획하게 된다. 둘째, 탐구에 맞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탐구의 과정에서 근거는 학생들은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데이터나 자료를 의미한다. 자료를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들의 가설이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이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새로 수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연관 짓고 그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넷째, 학생들에게 탐구를 통해 학습한 내용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이 주어진 질문에 어느 정도까지 답하였는지, 탐구의 과정에 사용한 근거나 자료는 적절했는지, 도출한 결론은 충분한 근거를 가진 합리적 결정이었는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자들은 기존의 교육과정 문서의 형식에 따라 ‘~을 사례로 탐구한다’, ‘oo의 발달 과정을 탐구한다.’ 등과 같이 성취기준에서 어떤 내용 요소를 탐구할지에 대해서만 제시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탐구를 위한 소재나 접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효과적인 탐구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고 탐구 과목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보완하고 신설 과목으로서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위하여 성취기준 해설에서 과목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장기 프로젝트 탐구 활동과 단원별 내용 요소와 관련한 기초 탐구 활동을 제시하였다. ‘삶의 공간, 도시’ 영역에서 살기 좋은 도시의 다양한 사례와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변화하는 도시’ 영역과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영역에

서는 도시의 변화와 도시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도시의 미래’ 영역에서 나와 우리가 만드는 살기 좋은 도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첫 번째 영역은 도시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은가?”를 탐구 주제로 제시하였다. 살기 좋은 도시의 사례와 특징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살고 싶은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탐구한다. 이때, ‘나를 단순히 고등학생 신분인 학습자가 아닌 10대, 70대, 예술가, 자영업자, 이민자 등 다양한 유형의 시민에게 투영하게 함으로써,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다양한 유형의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길고 어려운 타협의 과정임을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역은 도시의 체계와 공간구조, 도시의 성장과 변화에 따라 도시민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다룬다. 이 단원과 관련한 기초 탐구주제로는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문화, 서비스업의 발달, 기술 발달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살고 있거나 사는 지역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발생한 변화와 그 원인, 전망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시민성을 키울 수 있다. 세 번째 영역에서는 공간 정의를 키워드로 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탐구하도록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를 사례로 이주 외국인의 사회·공간적 연결망과 다문화 공간의 발달과정을 탐구 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 공간은 고정되고 낙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화하는 공간임을 자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싼 갈등, 미디어에 담긴 이주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주 외국인의 증가로 나타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세계 여러 도시의 다문화 공간 사례를 찾아 보고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혐오와 차별을 완화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마지막 영역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을 탐구하고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나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습자 개인의 태도와 참여를 강조하는 네 번째 영역의 학습 요소와도 관련이 있지만, 살기 좋은 도시가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에서 앞의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되새길 수 있고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 전반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방향 및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 III. 2022 개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 개발의 주요 내용

#### 1. 「도시의 미래 탐구」 내용 체계

교육과정에서의 내용 체계는 학생이 학습해야 할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보여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각 교과와 핵심 내용 또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내용 체계를 조직한다. 핵심 아이디어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표현되며(Wiggins and McTighe, 2005), 이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내용 체계’로 구성해 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는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과목의 학습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은 역량 함양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학습자가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과목의 학습을 통한 역량을 기른 것이 된다(온정덕 외, 2021).

표 2는 2022 개정 고등학교 지리 영역 교육과정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의 내용 체계표이다. 「도시의 미래 탐구」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영역’은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일차적 기준이자 개념적 주제를 뜻한다. 즉, ‘영역’은 대단원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본 과목에서는 ‘삶의 공간, 도시’, ‘변화하는 도시’,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도시의 미래’의 영역 아래에 필수 학습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다.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위에서 제시한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4개의 영역 모두에서 공통적인 과정·기능과 가치·태도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를 학습할 수 있다고 보아 과정·기능, 가치·태도에 해당하는 내용 요소는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표 2의 아래에 모아서 제시하였다.

#### 2. 「도시의 미래 탐구」 성취 기준

2022 개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총 12개이다. 도시지리학 이론과 모델의 단순 전달을 지양하고 도시의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고 탐구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학습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12개의 성취기준만을 제시하였다. 2022 개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은 표 3과 같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을 단원 수준이 아닌 영역의 층위에서 교과 학습의 결과로서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을 진술문으로 제시하여 과거에 비해 성취기준의 수를 줄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원 수준에서 성취 수준을 상세화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성취기준이 학습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온정덕 외, 2021). 성취기준 해설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유의점, 교수학습 방법을 성취기준 해설에 포함하여 서술했던 것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방법은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학습 내용의 범위와 평가 내용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자세한 교육과정 해설이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다양한 교과서 개발을 막는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연구진은 이러한 판단이 기존에 존재하던 과목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으나, 신설 과목인 「도시의 미래 탐구」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까지 유사한 과목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축약하여 제시하는 교육과정 성취기준만으로는 어떤 의도와 논리로 학습 주제 및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할지 파악하여 교수학습과정으로 구체화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교육과정 성취기준 해설에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자세히 성취기준에 대한 설명과 내용 요소,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에 대해 담고자 하였다.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은 학생들이 도시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세계 여러 도시의 역동적인 변화를 탐색하고, 도시 문제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목이다. 즉, 도시의 지속 가능한

표 2. 2022 개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류가 살아가는 대표적인 공간이자 삶의 방식인 도시는 여러 형태로 발달해왔으며,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관점은 다양하다.</li> <li>· 문화, 소비, 기술 발달 등에 따라 도시의 경관과 공간 구조, 시민의 삶은 끊임없이 변화한다.</li> <li>·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도시 문제와 공간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li> <li>· 지속가능하며 공공성이 높은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소를 조화롭게 고려한 도시 계획과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도시 혁신이 필요하다.</li> </ul>
범주		내용 요소
지식 · 이해	삶의 공간,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의미와 도시적 생활양식</li> <li>· 도시의 발달과 도시의 유형</li> <li>·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li> </ul>
	변화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체계와 도시 공간 구조</li> <li>· 도시 브랜딩과 건축</li> <li>· 도시 경제와 소비</li> <li>· 첨단 산업 및 모빌리티의 발달과 스마트 도시</li> </ul>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의 환경 문제와 재난</li> <li>· 도시의 부동산과 주거 문제</li> <li>· 이주에 따른 도시 인구 구성과 도시 공간의 다양화</li> </ul>
	도시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높이는 도시 계획과 도시 혁신</li> <li>· 도시의 공공성과 도시 민주주의</li> </ul>
과정·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를 둘러싼 지리적 쟁점을 탐구하기 위한 다양한 지리적 질문을 제시하고 탐구 계획 세우기</li> <li>· 야외조사, 지리정보기술, 빅 데이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지리적 탐구에 필요한 유용한 지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li> <li>· 수집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취사선택하기</li> <li>· 다양한 자료를 가공하여 지리 정보로 제작한 후, 이를 활용하여 소통하고 공간적 의사 결정하기</li> <li>· 도시에 대한 지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살기 좋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기</li> </ul>
가치·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를 둘러싼 지리적 쟁점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가치 존중</li> <li>·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li> <li>· 자신이 사는 지역과 도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책임감</li> <li>· 공간 정의와 지속가능성, 공공성의 관점에서 도시의 미래를 탐구하는 태도</li> <li>· 인간과 비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자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생태적 감수성</li> <li>· 도시 계획 수립과 도시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li> </ul>

출처: 교육부, 2022b, 373.

미래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본 과목의 내용 요소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은 ‘삶의 공간, 도시’, ‘변화하는 도시’,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도시의 미래’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영역인 ‘삶의 공간, 도시’는 도입의 의미를 갖는 영역으로 학생들이 별다른 인식 없이 경험하고 생활해왔던 도시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단원이다. 도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 사례들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학생 개인의 경험

이나 도시에 대한 인식 등 사적 지리와 관련한 내용을 통해 흥미를 유도한다. 두 번째 영역인 ‘변화하는 도시’는 도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지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영역이다. 도시 체계와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도시의 성장과 변화를 이끄는 힘을 문화, 서비스업의 성장과 소비, 기술 발달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도시의 기능과 경관, 그리고 삶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여러 도시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세 번째 영역인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사회적·자연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겪고 있

표 3. 2022 개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 교육과정 성취기준

영역	성취기준
삶의 공간, 도시	[12도탐01-01] 도시의 의미를 이해하고, 도시의 특성이 도시적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을 일상 공간을 사례로 탐구한다. [12도탐01-02] 도시의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시를 비교하고, 내가 사는 도시의 발달과정을 탐구한다. [12도탐01-03]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사례와 특징을 조사한다
변화하는 도시	[12도탐02-01] 도시 간의 상호 작용과 교류에 의해 형성되는 도시 체계를 이해하고, 도시 공간 구조는 고정되지 않고 지속해서 재구성됨을 인식한다. [12도탐02-02] 문화 자산을 활용한 도시 브랜딩과 건축이 도시의 경관과 도시에 대한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다. [12도탐02-03] 서비스업의 성장과 소비주의 심화가 도시 경제와 도시의 경관, 생활양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12도탐02-04] 첨단 산업과 모빌리티의 발달이 도시의 성장과 쇠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출현하고 있는 스마트 도시를 사례로 살고 싶은 도시의 미래 모습을 예측한다.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12도탐03-01] 도시의 환경 문제와 재난은 자연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12도탐03-02] 부동산에 대한 인식 변화와 도시의 주거 문제 심화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12도탐03-03] 국제 이주에 따라 도시의 인구 구성과 공간 구조가 변화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조사하고, 도시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도시의 미래	[12도탐04-01]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이 높은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토의하고 이와 관련한 도시 계획 및 도시 혁신 사례를 탐구한다. [12도탐04-02] 도시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정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시민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여 도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는지 알아보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영역인 ‘도시의 미래’ 영역은 앞의 세 영역에서 학습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과목 전반을 아우르는 탐구를 수행한다. 이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의 미래를 구체화하고, 그러한 미래를 위해 도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와 실천력을 함양한다.

2022 개정 「도시의 미래 탐구」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주요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삶의 공간, 도시

[12도탐01-01]은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도시, 도시적 생활양식이란 무엇인지 지리적으로 탐구해 보게 하도록 설정하였다. [12도탐01-01]의 성취기준 해설에서 연구진은 도시의 의미를 주관적, 객관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다루도록 서술하였다. 이는 도시를 정의하는 두 가지 관점인 주관적 정의와 객관적 정의를

의미한다(최재현, 2020). 도시를 ‘정의하는 것은 객관적 행위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성취기준 해설에서 언급한 도시의 주관적 정의의 의미는 도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도시의 이미지나 경관으로 정의할 수 있는 도시의 특색을 의미하며, 객관적 정의는 인구, 경제 기반, 행정 경계 등의 객관적 지표를 활용한 정의를 의미한다.

[12도탐01-01]이 학생의 경험, 장소감 등을 중심으로 도시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면, [12도탐01-02]는 도시가 어떻게 생겨나고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 과정에서 단편적 사실이나 이론을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학습 요소가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딱딱해지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도시를 살펴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을 성취기준 해설을 통해 안내하였다.

[12도탐01-01], [12도탐01-02], [12도탐01-03]에서는 도시의 특성, 다양한 유형의 도시, 내가 사는 도시의 발달과

정 등으로 도시를 중점으로 다룬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도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연구진은 이러한 생각은 도시가 크게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 도시와 촌락을 대비시켜 설명하는 도촌분리론의 입장에 기인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는 도시화율이 80%가 넘고 도시와 촌락이 연계된 경우가 많으며, 객관적으로 도시를 규정하는 기준도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도촌연속론의 입장(권용우 외, 2016)에서 도시를 탐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성취기준 해설에서 세계화와 기술의 발달로 도시적 생활양식이 물리적 경계를 넘어 널리 확산하고 있으므로 도시가 더는 분리된 공간 단위가 아니라는 점, 도시와 촌락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도시와 촌락이 대비되거나 우열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2) 변화하는 도시

[12도탐02-01]은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에서 가장 지리학적 색채를 강하게 띠는 성취기준이다. ‘삶의 공간, 도시’ 영역에서 학습한 도시의 개념과 발달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리학에서 도시를 연구한 결과물을 학습하도록 설계되었다. 연구진은 [12도탐02-01]의 “도시 체계를 이해하고”, “도시 공간 구조는”이라는 표현이 현장 교사들에게 동심원지대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등 도시지리와 관련한 이론의 학습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될 것을 경계하였다. 성취기준 해설에도 언급했듯이 도시 공간 구조에 관해서는 전통적인 도시이론을 상세히 다루는 것을 지양하며, 도시 공간 구조가 고정되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 등에 의해 변화하고 재구성됨을 여러 대도시의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2도탐02-02]는 도시의 경관과 인식 변화에 문화 자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여기서는 지리교사 모임인 지리교사 네트워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흥미롭게 여기는 주제로 나타난 역사, 예술, 축제, 여행 등의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도시 브랜딩 사례를 통해 문화 콘텐츠, 마케팅 분야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가 되고, 건축에서는 유명 건축가와 건축물, 도시 계

획가 등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건축 및 도시 계획 분야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12도탐02-03]은 도시의 변화나 서비스업에 대한 법칙이나 이론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것에서 벗어나 음식, 패션 등 구체적 산업이나 도시의 경관 변화 등 실제 사례를 활용한 탐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서비스업이 분화하고 소비주의가 심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12도탐02-04]는 기존의 지리 과목들이 기술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및 도시의 변화에 주목했던 것에서 관점을 바꾸어 최근 들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있는 모빌리티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도시의 성장과 쇠퇴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등 실생활에서 흔히 쓰이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든 소재들을 학습 요소로 다루면서 해당 개념의 학문적 정의와 함의를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3)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성취기준 [12도탐03-01], [12도탐03-02], [12도탐03-03]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자연적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정의로운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의 관점으로 도시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진행 경과, 문제 해결의 방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공간적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은 현재의 이슈와 가치, 논쟁을 적극적으로 담아내고자 하는 과목이다. 연구진은 기존의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에서 다루어진 ‘공간 불평등’이 결과로서의 불평등 그 자체만을 다루었을 뿐, 불평등의 원인과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만들 수 있는 세상과 삶에 대해 그려보는 가치 교육, 시민교육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시민성 교육을 크게 강조하는 상황에서 지리 과목이 인권, 정의와 같은 시민성 관련 개념을 다루지 못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지리 교과 위상에 심대한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리학의 심화 내용을 다루

고 학생들의 탐구를 통한 학습을 지향하는 본 과목에서는 객관적 사실의 이해와 인식을 넘어 탐구의 과정을 통해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학습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Soja(2010)의 공간 정의(Spatial Justice)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도시 문제를 환경 문제와 재난, 부동산과 주거 문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도시 구성원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현상을 공간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공간 정의의 개념적 모호성과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있음(Fainstein, 2010; Marcuse, 2010)을 인지하였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공간 정의’를 교육과정에 명시하면서 연구자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도시 문제를 활용한 시민성 함양 과정에서의 근거 이론으로 ‘공간 정의’를 활용하였을 뿐이지, Soja의 공간 정의의 개념을 학습 요소로 제시하면서 그 이론과 관련 논의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다.

[12도탐03-01]에서는 환경 문제와 재난의 종류와 원인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며 학습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환경 문제와 재난 발생의 지리적 패턴을 인식하고 공간 정의적 관점에서 그 함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12도탐03-02]는 부동산과 주거 문제를 다루는데,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차조일 외, 2021)에서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의 내용 요소로 제시되었지만 교육과정 정련화 과정에서 신지 못했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문제, 투기적 도시화,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로 대변되는 청년 주거 문제 등을 여기에서 다룰 수 있다.

[12도탐03-03]은 국제 이주에 따른 도시 문제 현황만을 조사하기보다는 조사된 현황을 바탕으로 이주 외국인의 사회·공간적 연결과 다문화 공간의 발달과정을 탐구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다문화 공간은 고정되고 낙후한 공간이 아니며, 끊임없이 재구성되고 변화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4) 도시의 미래

[12도탐04-01]에서는 도시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며 비인간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라는 생태 환경적 인식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성취기준이다. 이를 위해 도시 속 동물, 생태 지향적 건축, 에너지 전환, 쓰레기 처리, 재난과 위험 관리, 사회적 약자 보호, 모빌리티와 이동권, 도시 기반 시설 등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교수·학습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12도탐04-01]과 [12도탐04-02]는 지속가능성, 생태, 공공성과 관련한 다양한 개념을 다룰 수 있는 성취기준이다.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차조일 외, 2021)에서 제안되었던 생태 도시(에코 시티), 압축 도시(컴팩트 시티), 스마트 성장, 슬로시티, 포용 도시, 도시 커먼즈(urban commons) 운동, 마을(도시) 공동체, 공유 경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생태 도시, 도시 커먼즈 운동, 공유 경제 등을 다룰 때는 막연히 친환경과 공유가 좋다는 내용보다는 양면성을 함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파리의 15분 도시 정책을 둘러싸고 파리 내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외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 공유 경제는 공공성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과 아울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착화한다는 부정적 평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대안적 견해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만 인식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 IV. 요약 및 논의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은 현장의 교사들과 지리교육 연구자, 학습 당사자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논의의 과정을 거쳐 신설 과목으로 개발되었다. 앞에서 논의한 본 연구의 주요 내용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은 지리교육 관련자들의 의견과 수요를 수렴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역량 함양 사회교과군 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차조일 외, 2021)’에서 제안한 내용 요소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적용 가능성 및 학문적 정합성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학계의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진 내용일 것, 일시적으로 주목받는 이슈를 중심으로 내용 요소를 선정하지 않을 것, 너무 지역적인 소재를 교육과정

문서에 명시하지 않을 것, 현장 지리교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내용 요소일 것의 조건을 정하여 내용 요소를 확정하였다. 그 다음, 논리적 흐름에 따라 내용 요소를 배치한 후 필요한 교수학습과정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리적 관점에서의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과목의 내용 체계를 따라 도시의 형성과정과 변화를 이해하고 도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강조점인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요소를 제시하였다.

셋째, 「도시의 미래 탐구」라는 과목명 설정의 의도를 살리고자 맥락이 있으면서도 다양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성취기준 해설에서 과목 전체 영역을 아우르는 장기 프로젝트 탐구 활동과 단원별 내용 요소와 관련한 기초 탐구 활동을 제시하였다. ‘삶의 공간, 도시’ 영역에서는 도시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하고 살기 좋은 도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탐구주제를 제시하였고, ‘변화하는 도시’ 영역에서는 문화, 서비스, 기술 발달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살고 있거나 인근 지역의 도시에서 발생한 변화를 탐구하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도시 문제와 공간 정의 영역에서는 공간 정의를 키워드로 하여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탐구하는 주제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 ‘도시의 미래’ 영역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학습자 개인의 태도와 참여를 강조하는 탐구 주제를 통해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 전반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 방향 및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신설 과목인 「도시의 미래 탐구」가 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다음 교육과정에서도 안정적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과목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먼저, 「도시의 미래 탐구」의 심화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도시의 미래 탐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발되었다. 진로 선택 과목은 해당 학문의 핵심 아이디어 및 개념을

더욱 심화하여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교육부, 2021). 그러면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성취기준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미래 탐구」가 도시와 관련한 지리학의 심화 내용을 충실히 다루기 위해서는 사회와 교육과정 개발진 간의 유기적 연계와 내용적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의 구성이 필요하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줄이면서도 심화한 내용을 내용 요소로 다루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초등, 중등, 고등 공통 과정에서 무엇을 학습하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꼭 필요한 내용만 성취기준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개발 기간 동안 각 교육과정 개발진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내용 공유가 중요하다. 그러나 촉박한 연구기간 동안 타 과목의 연구진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하고 수정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연구진이 담당할 과목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 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교육과정 개발 기간과 교차 검토 기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함으로써 타 과목의 내용 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계열성과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심화 과목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연구진의 구성에 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는 교과 교육학을 전공한 교수 1명과 현장 교사 1명으로 연구진이 구성된다. 이러한 조합은 교육과정의 총론을 이해하고 내용 요소를 학교 현장에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여 성취기준으로 서술하는 것에는 강점을 가지지만, 교과 내용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결정하고, 가르칠 내용에 오류나 문제점은 없는지를 살피는 것에는 약점을 가질 수 있다. 전문가의 충분한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연구비가 제공되지 않는 교육과정 개발의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교육과정 개발진에 내용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연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의 미래 탐구」는 도시와 관련한 심화 내용을 다루지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융합적 특성, 진로 정보 제공, 실용성 등을 가져야 한다(심승희, 2016). 이러한 특성을 모두 만족시키려 하다 보면 지리 과목의

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질 수 있다. 연구진은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지리 과목의 정체성을 확실히 할지, 자유롭게 진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을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은 지리학을 바탕으로 한 탐구과정에서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다양하게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해당 진로에 대한 직·간접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해당 진로를 구체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기보다는 지리적 주제와 관련이 있는 직업군을 소개하거나 소수의 주제에서만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진로를 사례로 하여 지리적 분석과 탐구를 시도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후, 현장 교사들의 경험과 견해를 적극 수렴하고 지리교육 연구자들의 꾸준한 논의를 통해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추구해야 할 방향과 성격을 좀 더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권용우, 2016, 도시의 이해 (5판), 박영사.  
 교육부,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 발표 -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 교육부 보도자료 (2021.11.24.)  
 교육부, 2022a,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7].  
 교육부, 2022b,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별책1].  
 김동욱, 2019,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선택 교육과정 편성의 실제 및 학생 선택 경향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37(2), 131-157.  
 박선미·김혜숙·이의한, 2009,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교급 별 도해력 발달수준 분석 -2005~200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4(3), 410-427.  
 신경희, 2016, 교육과정의 이해, 학지사.  
 심승희, 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 진로선택과

목 「여행지리」의 개발과 관련 논의”,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24(1), 87-98.  
 온정덕 외, 2021,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 개발 기준 마련 연구”, 교육부 연구보고서.  
 은지용 외, 2022a,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용역-2021-17.  
 은지용 외, 2022b,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최종안) 개발 연구”, 교육부-용역-2022-7.  
 임은진, 2023, “2022 개정 지리 교육과정 개발 방향 및 주요 내용”,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31(1), 1-13.  
 최재현, 2020, 도시의 이해, 한국도시지리학회(편저), 도시지리학개론, pp. 5-21. 법문사.  
 홍원표, 2023,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책임교육: 교사들이 경험하는 모순과 가능성”, 교육과정연구, 41(1), 211-236.  
 Fainstein, S. S., 2010, *The Just City: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Marcuse, P., 2010, From critical urban theory to the right to the city, *City*, 13(2-3), 185-197.  
 Roberts, Margaret 저, 이종원 역, 2016, 탐구를 통한 지리학습 - 중등학교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푸른길(Roberts, M., 2013, *Geography through Enquiry - Approaches to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secondary school*, Sheffield: The Geographical Association).  
 Soja, Edward, 2010, *Seeking Spatial Justice*,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Wiggins, G. and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 VA: Association for Supervision and Curriculum Development.  
 접수일 : 2023. 05. 02  
 게재확정일 : 2023. 05. 15  
 교신: 이진희,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제2교수연구동 311호, 지리교육과 조교수(jinhee@pusan.ac.kr, 051-510-2660)  
 Correspondence: Jinhee Lee, jinhee@pusan.ac.kr